

전북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육성 방안
: E-7-M 비자와 전문대학 연계를
활용한 전북형 인력경로 설계

연구책임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J THINK



이슈브리핑 요약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기계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인구감소·고령화·청년 유출로 중간기술 기반의 농업 숙련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기존 외국인력 제도(E-8, E-9)는 단기·단순노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 역량과 정주를 전제로 하는 농생명 현장 인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움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 추진 중인 중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학생 수 감소 대응과 지역 인구·인력 유입을 목표로 하나, 졸업 이후 진로·비자·정주 경로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이 낮음
-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연계성이 낮은 학과 중심의 유학생 유치는 졸업 후 귀국 가능성이 높아, 도의 교육·생활 지원 투자가 농생명산업 인력난 및 농촌 정주 문제 해소에 환류되지 못할 우려가 큼
- 반면, 전북 전략산업과 직접 연계되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학생들은 전북 농촌에서 3년 이상 생활하며 농업 기초, 현장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축적해 잠재적 농업 숙련인력 풀로 성장할 수 있음
- 여기에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를 결합하면, 농업계고(D-4-3) →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 →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 → 인구감소지역 근속 기반 F-2 정주로 이어지는 끊김 없는 정주형 인력 패스웨이 설계가 가능함
-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전북형 농생명 숙련인력 경로(안)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송출국 직업계고와 협약을 체결해 전북 농업계고 유학 희망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6~12개월 동안 한국어·농업 기초·한국생활·노동법·안전교육 등 예비과정을 운영함
- 예비과정 이수자는 농업계고 본 과정(D-4-3) 입학에 허용하고, 재학 3년 동안 전공·한국어 교육와 함께 기숙사·상당·농촌체험을 연계해 농촌 적응력과 농업 기초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문대-취업-정주 경로의 기반을 마련함
- 둘째, 농업계고 졸업 외국인 학생은 전북 또는 인근 전문대에 진학하여 농생명 연관 제조·기술 전공을 통해 중간기술 역량을 습득하고, E-7-M 요건에 부합하는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이를 위해 농업계고-전문대 간 학점 인정·공동 프로젝트·현장실습 연계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함
- 셋째, 전문대 졸업 후 학생은 도내 농생명기업에 취업해 중간기술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 장기 인턴·채용예정형 인턴 등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E-7-M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문대학-기업-지자체 협력체를 구축함.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용·근속 의지를 강화함
- 넷째,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E-7-M 인력의 거주(F-2) 전환을 지원하여, 가족 동반·장기 체류가 가능한 정주형 인력으로서의 전환을 유도함
-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연계한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농생명기업(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 중심의 E-7-M 활용 확대, 전북특별법·조례 기반의 정착지원 패키지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 인력난 완화, 기존 클러스터·인프라 활용도 제고, 농촌 정주 기반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I. 전북 농생명산업 인력난과 농업 숙련인력 정책 전환의 필요성

농생명산업 고도화와 중간기술 인력 격차 심화

-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읍 연구·바이오단지, 완주 농기계산업단지 등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전북 농업을 1차 생산 중심 구조에서 가공·제조·연구·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농생명산업 구조로 전환 중임
- 산업 고도화와 달리 인구·인력 구조는 고령화·청년 유출·농촌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취약한 양상을 보이며, 스마트팜 운영, 식품공정 관리, 농기계 정비, 저장 설비 운영 등에서 요구되는 중간기술(Middle-skill) 숙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뉴시스, 2022)
- 기존 농업·농촌 인력정책은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등과 같이 단기·단순노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농번기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장기 정주형 숙련인력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 스마트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농기계·설비 등의 복잡화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단순·단기노무’가 아닌 ‘중간기술을 갖춘 장기 숙련인력’으로 전환되었으나, 정책은 여전히 단기 노동력 수혈에 머물러 교육-훈련-취업-정주가 연결된 경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정책 설계 공백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학생 수 감소 대응과 지역 인력 유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졸업 후 어떤 산업의 어떤 숙련인력으로 성장시킬지, 어떤 비자·정주 경로와 연계할지에 대한 설계가 부족함(국민권익위원회, 2025; 한겨레, 202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베트남 유학생 18명을 선발함(전북도민일보, 2025)
 - 2025년 기준 서울, 경북, 전남 교육청에 속한 33개 직업계고 외국인 재학생이 225명에 이르며, 2026년은 강원, 전북, 충남 교육청까지 유학생 280명을 모집함(한겨레, 2025)
- 특히, 농생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학과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전북이 투자한 교육·생활지원이 농생명산업 인력난 완화와 농촌 정주 기반 강화로 회수되지 못함

전북형 ‘정주형 숙련인력 패스웨이’로의 전환 필요

-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단순히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가’가 아니라 (농업계고)-(전문대)-(E-7-M)-(F-2)로 이어지는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전략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 인력난, 농촌 인구감소,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별개의 과제가 아닌 하나의 패스웨이로 묶어, 전북 차원의 통합 인력·정주 전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II. 농업계고와 전북 농생명산업의 연계 가능성

농업계고의 기능과 인력 양성 여건 변화

- 전북에는 작물·원예·축산·식품가공·농업기계·스마트팜 등 농생명 관련 전공을 운영하는 농업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 학교는 농업·농생명산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실증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교육 거점임
- 학생 수 감소, 농업·농촌 기피, 농촌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계고만으로 전북 농생명산업의 폭넓은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운영

- 농업계고를 내국인 청소년만의 학교가 아니라, 국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농업·농생명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도내 일부 직업계고(공업·기술계열 등)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여 국내 학생과 함께 교육하게 함으로써 전북이 외국인 청년을 지역 산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운영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기초학력, 문화·생활 적응, 기숙사·급식, 진로·상담,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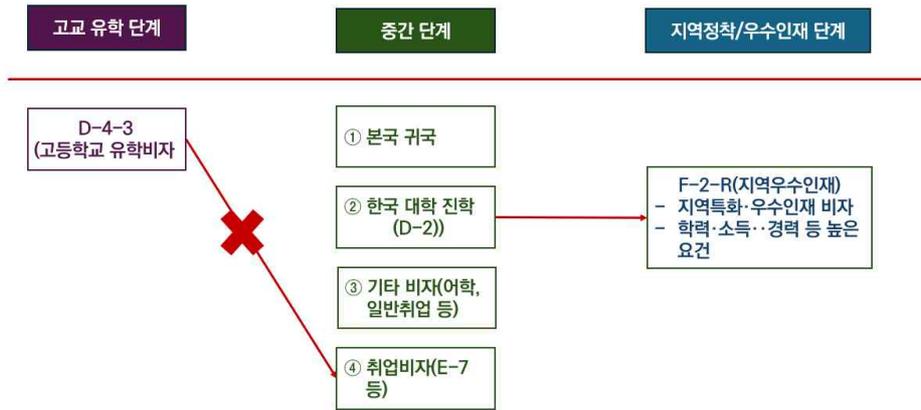
졸업 후 경로·비자 제약으로 인한 연계 단절

- 현행 체류체계에서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이들의 졸업 후 선택지는 본국 귀국, 국내 대학·전문대 유학(D-2), 어학연수(D-4-1)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농업·농생명 분야로의 합법적·안정적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일관된 경로는 부재한 실정임
- 지역특화형 거주비자(F-2-R) 등 정주형 비자는 소득·학력·체류 경력 등 요건이 높아 고교 졸업 직후 활용하기 어렵고, 일반 전문직 비자(E-7) 역시 학력·경력·연봉·기업 요건이 까다로워 농업계고 졸업자에 직접 활용 가능성이 낮음
-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한 학교는 공업·기술·서비스 계열 직업계고에 한정되어 있으며, 농업계고에는 아직 외국인 유학생 사례가 없음

정주형 숙련인력 경로 설계의 필요성

-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졸업 후 전북 농생명산업과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제도적 길'이 막혀 있는 것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농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1) 3년간 전북 농촌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문화·노동환경에 적응한 청년 집단을 형성하고, 2) 농생명 기초 기술을 습득한 잠재적 농업 숙련인력 풀을 만들며, 3) 전북 농업·농촌의 국제적 인지도와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를 가짐
- 농업계고는 전북 농생명산업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길러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경로와 비자체계 설계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다음 과제가 됨

〈현행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흐름 체계〉



지자 작성

III.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의 구조와 특성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 개요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제도는 국내 전문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중간기술을 겸비한 외국인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며 장기 정주형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시범사업은 2년(2026~2027년) 동안 운영되며, 취업률·불법체류율·한국어 능력 등의 성과를 토대로 연장·정규사업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농생명 분야 시범모델 등 지역의 정책 제안을 반영할 여지가 존재함

E-7-M 대상 요건과 전북 농생명 제조 분야 연계 가능성

- E-7-M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전문대학이며, 각 대학은 제조업 관련 전공 1개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학과 졸업생은 E-7-M 대상이 됨
 - 시범사업에서 인정되는 전공은 자동차·정밀기계 등 제조업 관련 학과에 한정되어 있고, 인문·사회·서비스·보건은 제외됨
- 농기계·스마트팜 서비스·농업 로봇, 식품·사료·비료·농자재 가공, 농산물 선별·포장·저장 설비 등은 모두 제조업 코드이자 전북 농생명 핵심 분야로, 농생명 연관 제조 전공을 통해 E-7-M 제도를 전북 농생명 숙련인력 정책과 연결할 수 있음

E-7-M 과정 유학생의 비자·재학 중 취업 특례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은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등 일정 수준의 한국어 요건으로 D-2 비자를 받아 입학할 수 있고, 시범 기간에는 비자 발급·연장 시 재정 능력 증빙 면제 등으로 유학 진입 장벽이 낮음
- 재학 중에는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기간이 최대 35시간까지 확대되고, 마지막 학기에는 출입국관서 허가 하에 전공 관련 기업 인턴 활동이 가능해, 학업과 현장 경험을 병행하며 졸업 후 취업(E-7-M)을 준비할 수 있음

E-7-M 발급 요건과 F-2 정주 전환 연계

- 졸업 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가 1)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5급 취득, 2) 전공 관련 업체와 연봉 2,600만원 이상·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M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근속(인구감소지역 근속 요건 포함) 등 요건을 충족하면 F-2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북은 인구감소지역 비중이 높고 농생명산업 집적도가 큰 지역으로, E-7-M과 F-2 전환 연계를 활용할 경우 농생명 숙련인력 확보와 농촌 정주 인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음

IV.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경로 설계(안)

정주형 농생명 숙련인력 경로 설계

-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경로는 '1) 농업계고 유학(D-4-3) → 2)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 진학 및 육성형 전문 기술학과(D-2) → 3)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 및 E-7-M 전환 → 4) 인구감소지역 근속 기반 F-2 정주'라는 4단계 구조로 설계됨
- 학생에게는 입학 시점부터 정주까지 한눈에 보이는 경로를 제시하고, 학교·기업·지자체에는 교육·지원 투자로 '전북에 정주하는 농생명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 원칙으로 함

[1단계] 농업계고 유학(D-4-3)

- 송출국 직업계고(농업·식품·기계 전공 등)과 협약을 맺어 전북 농업계고 유학 희망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 전 6~12개월 동안 한국어·농업 기초·한국생활·노동법·안전교육 등 예비과정을 운영함
- 예비과정 이수 후 농업계고 본 과정(D-4-3) 입학을 허용하고, 3년 동안 전공·한국어 교육과 기숙사·상담·농촌체험을 통해 전북 농촌 적응력과 농업 기초 역량을 높여, 향후 전문대-취업-정주 경로의 기반을 마련함

[2단계] 전북 농생명 특성화 전문대학(D-2)

- 농업계고 졸업 외국인 학생이 전북 또는 인근 전문대의 농기계·스마트팜·식품공정·농자재 등 농생명 연관 제조·기술 전공으로 진학해 중간기술을 습득하고, E-7-M 요건이 되는 학위를 취득함
- 일부 전공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해, 전공 교육과 함께 TOPIK 5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계고-전문대 간 학점 인정·공동 프로젝트·현장실습 연계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함

[3단계]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4)

- 전문대 졸업 후 학생은 도내 농기계·식품·스마트팜 설비·농산물 가공·포장·저장·농자재 제조 기업 등에 취업해 공정·장비 운영·유지보수·품질관리 등 현장 중간기술 직무를 담당함
- 마지막 학기 장기 인턴·채용예정형 인턴 등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E-7-M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문대학-기업-지자체가 협력하고,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용·유지 의지를 높임

[4단계] 전북 농촌 거주(F-2)

-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에 일정 기간(예: 3년 이상) 근속한 E-7-M 인력은 거주(F-2)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받으며, 가족 동반·장기 체류가 가능한 정주형 인력으로 전환됨
- 전북도·시군은 공공임대·농촌형 정주단지, 자녀교육·보육, 의료·통역·상담,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등을 묶은 정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여 비자 전환이 실제 농촌 정주와 지역사회로 이어지게 함
- 인구감소지역에는 농생명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세대·소득·수요가 형성되고, 외국인 숙련인력이 지역 경제·서비스 유지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둠

단계	체류자격	주요내용	전북 역할
1단계 (고교)	D-4-3	입학 전 6~12개월 한국어·농업 기술 연수 연계, 전북 농업계고 입학	교육청과의 협력 : 기숙사·생활·진로상담 등 고교 단계 정주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전문대학)	D-2	농생명 연계 제조·기술 전공 및 한국어·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농생명 연관 전공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추진 및 고교-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
3단계 (취업)	D-7-M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 및 중간기술 직무 수행	농생명기업·인구감소지역 기업과의 취업 매칭, 고용 계약
4단계 (정주)	F-2	인구감소지역 농생명기업 근속 기반 F-2 전환 및 전북 농촌 정주, 가족동반·장기체류 가능	주거·교육·생활 등 정주지원 패키지 제공 및 전북특별법·조례를 통한 제도화

저자 작성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경로 설계(안)〉



저자 작성

V.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과제와 추진 로드맵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시범 도입 건의

-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감소·인력난을 고려할 때 농생명 연관 제조 분야를 E-7-M 시범사업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업 현장 직무까지 포괄하는 ‘농업 특화 E-7-M 트랙’ 신설이 필요함
- 전북도는 농생명산업 인력 수급 실태조사, 기업·학교 수요 조사, 인구감소지역 정주계획 등을 종합해 정책 제언서를 마련하고, 법무부·농식품부·교육부 등과 협의를 지속하며 전북형 시범모델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패스웨이 협의체 구축

-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경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는 교육청, 농업계고, 전문대, 농생명기업, 중앙부처를 포괄하는 ‘전북형 농업 숙련인력 패스웨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야 함
- 이 협의체는 각 기관의 역할·책임을 조정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상설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음
- 협의체는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입학 기준, 고교-전문대-기업 연계 커리큘럼 및 현장실습 운영 방안, E-7-M-F-2 전환 인력 정착지원 프로그램, 예산·인력·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 및 조정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되며, 시범사업 설계·평가·확산 단계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전북특별법·조례 기반 정착지원 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전북이 농생명산업, 농촌 정주, 인구감소 대응 등에 관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
- 전북도는 이를 활용해 농생명산업 외국인 숙련인력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교육·보육·생활·문화·통역 지원을 포함하는 정착지원 패키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농촌형 정주단지, 지역 생활SOC와 연계해 E-7-M-F-2 전환 인력을 우선 입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녀 교육·보육·의료·교통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시범사업 추진·평가·확산 전략

- 초기에는 농업계고, 전문대, 농생명기업을 선정해 전북형 모델을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적합성, 학생·기업 만족도, 취업·정주 실적,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야 함
-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참여 학교·전문대·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전북의 모델이 전국적인 농업 숙련인력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VI. 결론

농업계고 유학생의 잠재력 : '전북형' 숙련인력 풀의 형성

-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전북 농촌에서 3년 이상 생활하며 농업 기초·현장 경험·한국어 능력을 동시에 쌓는 집단으로, 전북 농업·농촌에 특화된 미래 농업 숙련인력의 씨앗으로 볼 수 있음
- 이들은 일반 어학연수·대학 유학 경로보다 전북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정주 가능성이 높고, 농기계·스마트팜·식품 공정 등에서 내국인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중간기술 인력 수요를 보완하는 인력풀로 성장할 수 있음

제도적 연결고리 : E-7-M을 통한 '실현 가능한' 취업·정주 경로

- 기존 비자체계는 고교 졸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정주 경로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E-7-M은 전문대 졸업 → 중간기술 직무 → 인구감소지역 근무 → F-2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경로를 제시함
- '농업계고(D-4-3) → 농생명 전문대(D-2) → 전북 농생명기업 취업(E-7-M) → 인구감소지역 정주(F-2)' 패스웨이는 교육·취업·정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전북의 농생명 인력정책·농촌 인구정책·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통합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 기반 확대 기대

- 이 경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 전북 농생명기업은 클러스터·단지를 돌리는 공정·설비·품질·데이터 담당 현장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생명산업의 경쟁력과 기존 인프라 활용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농생명 기업에서 근무하는 E-7-M 인력이 F-2로 전환·정주하면, 해당 지역에는 지속적인 세대·소득·소비 수요가 형성되어 상권·생활서비스 유지와 농촌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게 되며, 전북자치도는 농업·농촌 인구위기 대응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참고 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25).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는 뒷전인 직업계고”...제도개선을 통해 선진 ‘K-직업교육’ 만든다.(2025.11.13., 보도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11.).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소장환. (2025). 이대로 가면 ‘사라진다’, 전북 소멸위험...7개 시·군 ‘소멸 고위험’ 단계. 전민일보.(2025.11.21.).
- 이정은. (2025). 전북지역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본격화...정주인구 확보 ‘물꼬’. 전북도민일보.(2025.7.10.)
- 한겨레. (2025). 졸업 뒤 취업 비자도 없는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늘리는 교육청들.(2025.10.23.)

Vol. 340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